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 동향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lee@kiep.go.kr, Tel: 044-414-1134)



차 례

1. 서론
2.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 특징
3.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은 2018년 말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액 619억 달러, 법인 수 14,680개에 달하는 4대 투자 대상지이며, 2017년 말 신남방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크게 증가함.
 - 특히 최근 우리 기업들의 對아세안 투자가 대중국 투자를 상회하면서 아세안의 전략적인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 신남방정책 발표 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對아세안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지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후 2018년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신규법인 1,291개, 투자액은 61억 3천만 달러로 동기간 대비 각각 14.1%, 16.7% 증가함.
 - 이는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對미국 투자가 전년대비 28.9%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이며, 업종별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투자구조(41.0%)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보험(19.2 → 25.1%)·도소매업(7.1 → 8.8%)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71.4 → 64.4%로 감소한 반면 개인의 투자 비중이 2.9 → 4.7%로 증가함.
- ▶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년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투자는 주요 투자국인 베트남,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對인도네시아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투자는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이 5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싱가포르(25.6%), 인도네시아(8.1%)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2018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약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6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증가함.
 -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또한 신남방정책 발표 후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업종인 금융·보험·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개인 및 기타 부문의 투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2018년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대비 48%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농림업 부문의 투자는 증가했으나, 금융·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 감소세를 주도함.
- ▶ 신남방정책 발표 후 양적인 對아세안 투자진출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투자업종 다각화 및 현지 수요를 감안한 아세안 소비시장 투자, 스마트 ICT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진출 등 중장기적 전략 변화가 요구됨.

1. 서론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지로 각광받아옴.

- 2018년 말 누계 기준 한국의 對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법인 수 14,680개, 투자액 619억 달러로 對세계 투자 총액의 13.7%를 차지하는 4대 투자 대상지임.

표 1. 한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비교(1980~2018년 누적액 기준)

(단위: 억 달러, 개, %)

순위	국명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14,700	19.2	1,053	23.2
2	중국	27,335	35.7	649	14.3
3	EU	2,979	3.9	623	13.7
4	아세안	14,680	19.1	619	13.6
5	케이만군도	409	0.5	274	6.0
총액		76,670	100.0	4,5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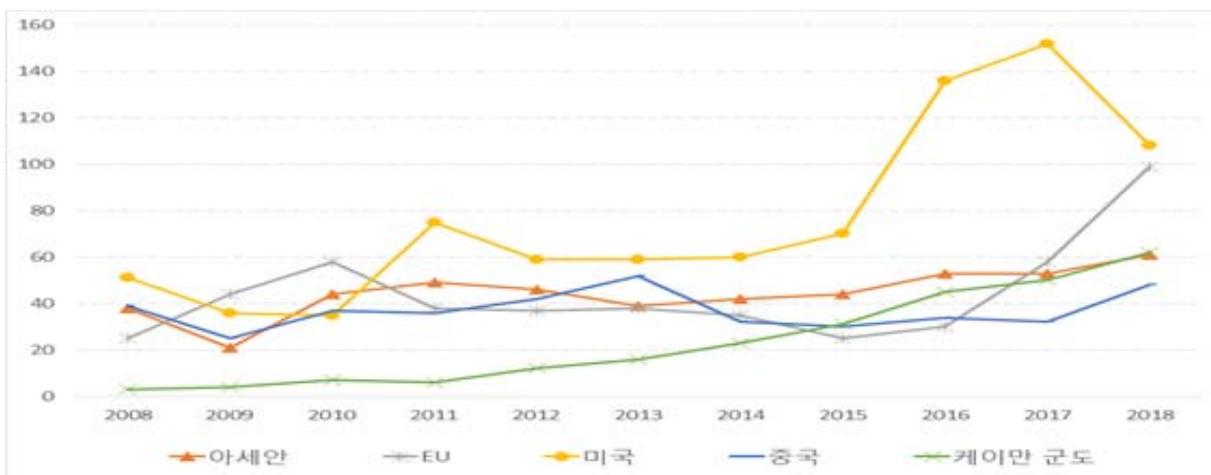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국별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對아세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투자액 기준 2위 투자대상국인 중국을 상회함.

- 2018년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액은 약 61억 달러를 기록해 對중국 투자액 48억 달러의 약 1.3배에 달함.
- 2위와 3위를 차지한 EU와 케이만군도의 경우 최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상위권 투자 대상지로 부상했으나 금융업 특성상 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최근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비교(2008~2018년)

(단위: 억 달러, 개,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현재 2017년 말 신남방 정책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현시점을 감안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동 보고서에서는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전후 동기간 한국 기업들의 對아세안 국별·업종별·기업규모별 투자 동향을 분석·진단하고자 함.

2.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 특징

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對아세안 투자

-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2017년 말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對아세안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간 대비 법인 수, 투자규모 모두 크게 증가함.
 - 2018년 한해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신규법인 1,291개, 투자액은 61억 3,6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1%, 16.7% 증가함.
 - 이러한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 증가는 동기간 최대 투자대상국인 對미국 투자가 전년대비 약 29% 감소한 점과 대비되는 성과이며, 전세계 투자 증가율 12%도 상회함.
- 신남방정책 발표 후 업종별 對아세안 투자는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투자 업종이 다변화되는 추세임.
 - 한국의 對아세안 업종별 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50.9 → 41.0%로 감소했으며, 금융·보험은 19.2 → 25.1%, 도소매업은 7.1 → 8.8%, 부동산업은 4.7 → 7.3%로 증가함.

표 2.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對아세안 업종별 투자 변화(2017~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

업종대분류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474	41.9	2,675	50.9	522	40.4	2,514	41.0
금융 및 보험업	28	2.5	1,010	19.2	27	2.1	1,542	25.1
도매 및 소매업	204	18.0	371	7.1	250	19.4	543	8.8
부동산업	37	3.3	245	4.7	51	4.0	450	7.3
광업	4	0.4	220	4.2	2	0.2	217	3.5
운수 및 창고업	34	3.0	97	1.8	33	2.6	159	2.6
건설업	79	7.0	135	2.6	78	6.0	148	2.4
농업, 임업 및 어업	10	0.9	55	1.0	15	1.2	139	2.3
정보통신업	81	7.2	98	1.9	94	7.3	129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	4.8	64	1.2	84	6.5	108	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0.7	94	1.8	11	0.9	98	1.6
숙박 및 음식점업	49	4.3	120	2.3	45	3.5	34	0.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31	2.7	49	0.9	32	2.5	29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0.7	8	0.2	7	0.5	12	0.2
교육 서비스업	16	1.4	13	0.2	19	1.5	9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0.4	1	0.0	7	0.5	4	0.1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0.5	2	0.0	8	0.6	1	0.0
수도, 하수, 폐기물, 원료 재생업	0	0.0	1	0.0	5	0.4	0	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0	0	0.0	0	0.0	0	0.0
N/A	4	0.4	1	0.0	1	0.1	0	0.0
합계	1,131	100.0	5,258	100.0	1,291	100.0	6,136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기업 규모별 對아세안 투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대기업의 비중이 71.4 → 64.4%로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4.1 → 26.9%, 개인은 2.9 → 4.7%, 기타 투자는 1.5 → 3.8%로 소폭 증가함.

표 3.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기업규모별 對아세안 투자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개, %)

주투자자 규모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124	11.0	3,752	71.4	139	10.8	3,949	64.4
중소기업	652	57.6	1,266	24.1	745	57.7	1,650	26.9
개인기업	18	1.6	9	0.2	22	1.7	17	0.3
개인*	329	29.1	154	2.9	373	28.9	286	4.7
기타(비영리단체 등)	8	0.7	77	1.5	12	0.9	233	3.8
합계	1,131	100.0	5,258	100.0	1,291	100.0	6,136	100.0

주: * 해외투자 신고 당시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개인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신남방정책 발표 후 한국의 對베트남, 對싱가포르 투자가 전반적인 對아세안 투자 증가를 주도한 반면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크게 감소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투자는 베트남이 5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약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60.3% 증가했으며, 對싱가포르 투자 또한 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49.2% 증가함.

- 반면 여타 국가들은 대다수 투자 금액이 감소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전년대비 각각 26.6%, 51.1%, 57.8%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표 4.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투자 변화(2017~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

국가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개	비중	금액	비중	개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베트남	697	61.6	1,973	37.5	822	63.7	17.9	3,162	51.5	60.3
싱가포르	98	8.7	1,052	20.0	142	11.0	44.9	1,570	25.6	49.2
인도네시아	89	7.9	677	12.9	91	7.0	2.2	497	8.1	-26.6
필리핀	47	4.2	564	10.7	31	2.4	-34.0	276	4.5	-51.1
말레이시아	61	5.4	280	5.3	55	4.3	-9.8	213	3.5	-23.9
캄보디아	41	3.6	410	7.8	47	3.6	14.6	173	2.8	-57.8
미얀마	27	2.4	137	2.6	49	3.8	81.5	110	1.8	-19.7
태국	63	5.6	106	2.0	50	3.9	-20.6	95	1.5	-10.4
라오스	6	0.5	58	1.1	3	0.2	-50.0	37	0.6	-36.2
브루나이	2	0.2	1	0.0	1	0.1	-50.0	1	0.0	0.0
총계	1,131	100.0	5,258	100.0	1,291	100.0	14.1	6,136	100.0	16.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나. 주요 아세안 국가별 투자 특징

-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상세 투자 분석은 아세안 국가 중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선정해 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 내역을 분석함.

1)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약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6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최대 투자업종이나 신남방정책 발표를 전후로 비중이 71.0 → 61.8%로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부동산·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표 5.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對베트남 업종별 투자 변화(2017~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

업종대분류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개	비중	금액	비중	개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367	52.7	1,401	71.0	414	50.4	1,954	61.8
부동산업	13	1.9	74	3.8	28	3.4	361	11.4
금융 및 보험업	4	0.6	123	6.2	3	0.4	290	9.2
도매 및 소매업	122	17.5	141	7.1	154	18.7	229	7.2
광업	1	0.1	79	4.0	0	0.0	135	4.3
건설업	42	6.0	44	2.2	41	5.0	43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0	1	0.1	6	0.7	25	0.8
숙박 및 음식점업	27	3.9	34	1.7	34	4.1	24	0.8
운수 및 창고업	22	3.2	8	0.4	19	2.3	23	0.7
농업, 임업 및 어업	2	0.3	1	0.1	7	0.9	22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	3.7	13	0.7	38	4.6	21	0.7
정보통신업	36	5.2	40	2.0	35	4.3	16	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14	2.0	5	0.3	16	1.9	7	0.2
교육 서비스업	12	1.7	8	0.4	13	1.6	6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0.4	1	0.1	3	0.4	3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3	0	0.0	4	0.5	2	0.1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0.4	1	0.1	4	0.5	1	0.0
수도, 하수, 폐기물, 원료 재생업		0.0		0.0	3	0.4	0	0.0
N/A	1	0.1	0	0.0	0	0.0	0	0.0
합계	697	100.0	1,973	100.0	822	100.0	3,16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신남방정책 발표 후 기업 규모별 對베트남 투자는 대기업 및 개인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

-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투자 증가분은 약 7억 6천만 달러로 비중도 51.5 → 56.0%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도 약 3억 4천만 달러 증가했으나 비중은 41.4 → 36.7%로 감소함.

표 6.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기업규모별 對베트남 투자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개, %)

주투자자 규모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55	7.9	1,016	51.5	55	6.7	1,772	56.0
중소기업	420	60.3	816	41.4	506	61.6	1,159	36.7
개인기업	15	2.2	8	0.4	19	2.3	16	0.5
개인	205	29.4	109	5.5	238	29.0	199	6.3
기타(비영리단체 등)	2	0.3	25	1.3	4	0.5	17	0.5
합계	697	100.0	1,973	100.0	822	100.0	3,16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2)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동향

■ 신남방정책 발표 후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금융·도소매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함.

-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약 5억 2천만 달러 증가해 전년대비 4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최대 투자업종이나, 對싱가포르 투자는 금융·도소매·정보통신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싱가포르는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 및 지주회사들이 진출해있어 對싱가포르 투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아세안 전역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 對싱가포르 투자 중 상위 업종인 금융·보험은 약 9억 3천만 달러, 도소매업은 약 2억 4천만 달러로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에서 각각 해당업종의 60%, 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7.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對싱가포르 업종별 투자 변화(2017년~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

업종대분류	2017년				2018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개	비중	금액	비중	개	비중	금액	비중
금융 및 보험업	16	16.3	343	32.6	13	9.2	925	58.9
도매 및 소매업	19	19.4	153	14.5	32	22.5	239	15.2
운수 및 창고업	3	3.1	76	7.2	8	5.6	118	7.5
정보통신업	22	22.4	28	2.7	40	28.2	96	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8.2	25	2.4	19	13.4	58	3.7
제조업	9	9.2	203	19.3	12	8.5	45	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0	15	1.4	0	0.0	24	1.5
부동산업	2	2.0	118	11.2	3	2.1	24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4	4.1	7	0.7	7	4.9	14	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0	1	0.1	1	0.7	8	0.5
건설업	5	5.1	10	1.0	1	0.7	6	0.4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	4	0.4	0	0.0	4	0.3
광업	0	0.0	4	0.4	1	0.7	3	0.2
숙박 및 음식점업	5	5.1	59	5.6	3	2.1	3	0.2
교육 서비스업	1	1.0	5	0.5	2	1.4	2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0	1	0.1	0	0.0	1	0.1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0.0	0	0.0	0	0.0	0	0.0
N/A	1	1.0	0	0.0	0	0.0	0	0.0
합계	98	100.0	1,052	100.0	142	100.0	1,57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對싱가포르 기업별 투자는 신남방정책 발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개인 및 기타 투자의 비중이 증가함.

-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는 전통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신남방정책 발표 후 대기업 비중은 84.4 → 77.0%, 중소기업은 11.4 → 6.4%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개인 및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투자자 규모가 다양화되고 있음.

표 8.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기업규모별 對싱가포르 투자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개, %)

주투자자 규모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21	21.4	888	84.4	22	15.5	1,209	77.0
중소기업	45	45.9	120	11.4	68	47.9	101	6.4
개인	28	28.6	9	0.9	47	33.1	48	3.1
기타(비영리단체 등)	4	4.1	35	3.3	5	3.5	213	13.6
합계	98	100.0	1,052	100.0	142	100.0	1,57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 2018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약 4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억 8천만 달러, 26.6% 감소함.

-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 업종인 제조업 및 농림업 부문의 투자는 증가했으나, 금융·보험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함.

표 9.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변화(2017~18년)

(단위: 백만 달러,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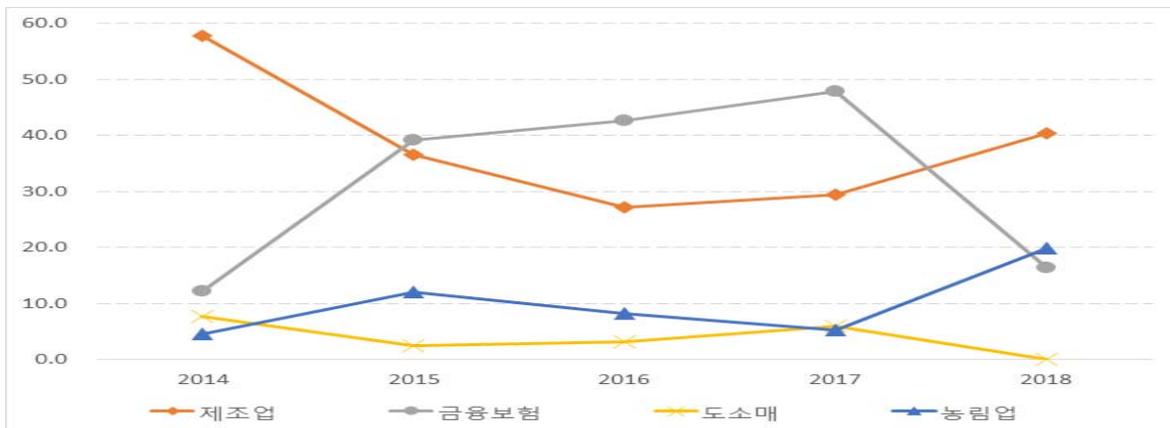
업종대분류	2017년				2018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개	비중	금액	비중	개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36	40.4	199	29.4	38	41.8	201	40.4
농업, 임업 및 어업	5	5.6	36	5.3	4	4.4	99	19.9
금융 및 보험업	0	0.0	324	47.9	3	3.3	82	16.5
부동산업	2	2.2	4	0.6	4	4.4	22	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3.4	17	2.5	4	4.4	18	3.6
건설업	5	5.6	2	0.3	4	4.4	18	3.6
광업	2	2.2	8	1.2	0	0.0	12	2.4
도매 및 소매업	16	18.0	40	5.9	17	18.7	12	2.4
정보통신업	5	5.6	21	3.1	7	7.7	11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3.4	2	0.3	3	3.3	9	1.8
운수 및 창고업	3	3.4	3	0.4	0	0.0	7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1	1.1	7	1.0	0	0.0	3	0.6
숙박 및 음식점업	7	7.9	12	1.8	2	2.2	1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1	1	0.1	1	1.1	1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원료 재생업	0	0.0	1	0.1	1	1.1	0	0.0
교육 서비스업		0.0		0.0	1	1.1	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0	0	0.0	1	1.1	0	0.0
N/A	0	0.0	0	0.0	1	1.1	0	0.0
합계	89	100.0	677	100.0	91	100.0	497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여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도 제조업이 최대 투자업종이나, 2015년부터 금융·보험 부문이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한 후 2017년 투자 총액 대비 48%의 최대 투자 비중을 기록한 후 투자규모가 급락함.
- o 금융·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는 최근 수년간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진출이 일정 수준의 목표치에 도달한 점과 2017년 연말부터 제기되어온 신흥시장 금융불안 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약세와도 유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2014~2018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8년 대기업의 투자는 전년대비 약 37.7%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전년대비 14.7% 증가함.
- 대기업의 투자 감소는 금융·보험 부문의 투자 감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연말에 발표된 4조원대의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10. 신남방정책 발표 전후 한국의 기업규모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개, %)

주투자자 규모	2017년				2018년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신규법인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14	15.7	538	79.5	21	23.1	335	67.4
중소기업	52	58.4	129	19.1	47	51.6	148	29.8
개인기업	1	1.1	1	0.1	0	0.0	0	0.0
개인	22	24.7	8	1.2	23	25.3	14	2.8
기타(비영리단체 등)	0	0.0	0	0.0		0.0		0.0
합계	89	100.0	677	100.0	91	100.0	497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3. 결론 및 시사점

■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은 2018년 말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액 619억 달러, 법인 수 14,680개에 달하는 4대 투자 대상지이며,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크게 증가함.

- 2018년 한국 기업들의 對아세안 투자는 신규법인 1,291개, 투자액 6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14.1%, 16.7%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對미국 투자가 전년대비 약 29% 감소한 것과 대비됨.
- 업종별로는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의 전통적인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 증가로 투자 업종이 소폭 다변화됨.
- 기업 규모별로는 최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개인의 투자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임.
- 국별로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對아세안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5 → 51.5%, 20.0 → 25.6%로 증가한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이 심화됨.

■ 신남방정책 발표 후 국별 對아세안 국별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점이 대조적임. - 2018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약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3% 증가해 對아세안 투자 증기를 주도했으며, 전통적인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부동산·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對싱가포르 투자 또한 전년대비 49.2%의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가 특성상 제조업보다는 금융·도소매·정보통신 등 대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반면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대비 약 25.6%의 큰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금융 대기업들의 투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신남방정책 발표 후 2018년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약 16.7%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에 대비해 그간 제조업에 집중해온 투자 업종을 다각화하는 한편 스마트 ICT 분야와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투자도 고려할 시점임.

- 한국의 對아세안 제조업 투자는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미·중 통상 분쟁과 같은 위협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통해 아세안을 글로벌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해온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 기존 선진국향 우회 수출용 제조업 중심의 생산네트워크는 지속 유지·발전시키되 향후 투자 업종을 금융·유통·정보통신 등으로 다각화하고 신남방정책에서 주요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 ICT 부문과 같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진출이 요구됨. KIEP